

# 아산뉴스

2005년 2월 25일 (금요일) 제134호

### 개혁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아산 맑은 쌀

발행인:아산시장 강희복/편집:공보체육과/우편번호:336-701/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124(운천동 1626)/전화:(041) 540-2221/팩스:(041) 540-2162/http://www.asan.go.kr

## 아산시, 교육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



▲ 지난 1월 3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영어캠프에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의 영어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생활영어 듣기학습 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다.

###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도시로 급부상

#### 아산시와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영어캠프



▲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모습

아산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인 변화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해와 그동안 아산의 교육역량이 열악하다는 평명을 받으며 씻어내고 교육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교육 여건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2005년도 고등학교 진학 통계에서 확인하게 됐다(아산뉴스 132호-2004년 12월호에 게재) 도서

판도 11개소로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신설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양적팽창은 물론 질적 향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권곡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용화중학교가 개교했으며 올해에는 용화고등학교가 문을 열고 새롭게 건립된 도서관을 통하여 양서 보내기 운동 전개, 독서 많이 하는 가족선정 및 시상 등으로 시민들의 독서 열기 또한 한층 고조 됐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학력고사를 볼 수 있게 되어 입시철에 타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불리한 여건도 해소 되므로서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 하므로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에 2003년과 2004년에 29억여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충남에서 가장 큰 17억여원 규모의 시립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50억 원 규모의 시립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장학금도 금운동을 실시민운동을 원이민교육, 영어캠프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도를 고한 사람, 아산사람의 해로

정하고 4대시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시민장학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아산을 건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산 맑은쌀 품질관리 시스템 전격 가동



시는 아산 맑은쌀이 전국쌀품질회에서 2년연속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4년도 대상수상과 함께 소비자가 뽑은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품질을 입증 받으면서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고품질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전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위해 3개분과 위원회와 1개의 품질관리지도 점검반으

로 구성된 아산맑은쌀품질관리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여 생산에서 가공, 출하에 이르는 가공 및 유통공정을 지도·점검 하므로서 고품질 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관리 협약을 아산맑은쌀 생산 RPC대표자와 시가 직접 체결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시에는 7개의 제재조항을 만들어 브랜드사용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포장재 회수조치, 보조사업 중단등 강력하게 제재

하기로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제재조치는 아산 맑은쌀의 고품질대상 및 우수브랜드 수상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완벽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관리를 확대해 나가 농산물이 수입 개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단일품종 순도를 80%이상으로 품질기준을 강화, 개선하면서 아산 맑은쌀 생산기준에 맞는 품종, 재배, 수확 및 건조에 이르기까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의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계약재배 농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압과 소득보전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말 부터는 아산 맑은쌀의 이미지를 담아내면서 으뜸명미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세련되고 품위있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포장재에 담아 아산 맑은 쌀이 소비자를 찾아 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산 맑은쌀이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 공급과 생산능력은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일제 강점기 피해자 신고 받습니다

### 시청 2층에 접수처 마련, 벌써 240여명 신고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관련 사건에 대하여 시는 6월 30일까지 시청 2층(영상회의실)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고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및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신원을 알수 있는 서류 ▲피해자 효직 등본 또는 제적등본(사유서로 대체 가능)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고 1차기간이 6월 30일까지임을 참고 해야 한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등의 피해를 가르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240여명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 상환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별로 없지만 또 우리나라만큼 교육분포로 사회가 시끄러운 나라도 없다.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들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교육정책이 조변석개 하지도 않고 또 교육문제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일이 없다.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주5일 근무를 주장하고 나서자 일본 사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단호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면목시라 하겠다.

또 대만의 경우에는 언젠가 교육부 장관이 신년 교육 정책에 대하여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장관은 교육 정책은 조상들이 이미 다 정해 놓았다고 우리는 단지 그를 충실히 집행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너저 보던 조명은 두꺼림만 말이나 대대로 보여 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후손의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 두 나라가 그렇다고 하여 국가 전체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방식이 결코 정책적이거나 전근대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반대로 우리는 잘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뉘뉘리

쳐보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의 교육 수준도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것일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오늘날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겠지만 또한 직업소개소도 교육이 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교육은 이제 단지 가르침에서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 자국은 개인이 문제에서 크게는 국가의 문제로 까지 영역의 범주가 그 어느 것보다 넓은 것이 교육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바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과 삶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던 종던, 문제가 있던 없던 우리는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사람들은 지식사회라 부른다. 지식사회는 자연사회와는 달리 지식이 사회의 모든 척도가 되고 지식의 모든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자연사회에 있어서 힘이 생존의 수단이었다면 지식사회에서는 바로 지식이 생존의 수단이 된다. 즉 이러한 사회에서 지식이 없으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여지마저 없을 뿐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부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데 지식사회에 있어

서 이러한 논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 내지는 생존력이 바로 지식의 일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바로 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오늘에 있어서 교육은 옛날처럼 한가한 정서적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다들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교육 정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여 교육정책을 운용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의 민주적 삶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이것이 먼저 쪼갬이 맞다 그런 쪼갬이 아닌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육성해야 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인류 산업이 국경을 넘어 분업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망의 경제에서 볼 때 교육은 미래 산업 중 핵심을 차지할 것이며 이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한다고 하겠다.

특히 지식의 종속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독자적인 학문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은 더욱 더 투자되고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교육에 대한 아산시의 투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산 표본이라 하겠으며 타 지역 단체의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아산 건설을 위해 힘찬 전진을 5대 시민실천운동 적극전개, 자랑스런 내고장 아산사랑운동으로 승화

올유년 새해를 맞으면서 아산시는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 깨끗한 도시, 정감어린도시』라는 5대 기본목표를 설정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도시 아산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주심장으로 경쟁력 있는 스마트 도시 아산 건설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방안등을 구체화 하면서 관광도시에 걸맞은 이미지와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세부 추진계획들을 심도 있게 토의 추진하기로 했다.

### ■ 이미지를 번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거리에 비치해 있는 가로 휴지통을 우리시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새롭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꿀 계획이며 새롭게 조성되는 거리의 가로등 또한 그 거리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독특한 멋을 자아내는 색상과 도안에 대한 선정을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시에 건립되는 대형건물과 광고물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하나하나의 개성을 살려 도시 전체의 은은한 맛이 우리나라 특 모양과 색상에 큰 관심을 기울여 건설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집중 토의 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경관심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조례나 규칙등을 제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아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도시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계공무원 및 관련 건축설계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건물 및 도시의 색채, 도시경관의 필요성, 스카이라인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 교육도 실시한다.



▲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위한 관계자 교육

이와함께 살아 움직이는 광고물 판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활라화를 추진토록하여 관광도시 아산, 스마트 도시 아산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할 예정이다.

### ■ 아름답고 정감어린 도시를 만듭니다

도로변에 조금씩 남아있는 자투리 땅을 이용해 세련되고 아기자기한 썬지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대상지를 조사할 것과 기존에 있는 공원도 녹음이 우거진 아름답고 편안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손색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상쾌한 화장실을 건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전이 예상되는 온천중의 삼정공원 도시를 매입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민헌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

으로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추진중이며 화해유실수 목욕을 아파트에 나눠줘 단지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주요도로변과 온천지, 관광지에 편지, 영산홍, 베고니아등의 꽃모를 식재하고 꽃박스를 설치하며 휴실수를 가로수로 식재해 아름답고 정감어린 도시 이미지를 연출토록 할 계획이다.

### ■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버스승강장에 대한 전면설 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 재정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려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활용 방침이다.

차도와 인도가 구별하기 힘든 도로변에 위함이 상존함을 감안하여 인도조성시에는 안전성을 제일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며 인도블럭의 색상이나 구성도안, 자전기도도 조성도 원칙에 포함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이나 일부분의 편익보다는 보다 폭넓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생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도적 장치미련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스마트 도시는 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시의 과제라는 공과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의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3월 26일까지 제안공모에 들어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 참고, 문의전화 540-2459)

## 금곡천이 깨끗해 졌어요!

아산시 중기연합회 (회장 맹승섭)회원들은 겨울철 건설장비의 비수기를 이용해 관내의 하천을 정비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덤프트럭 44대와 포크레인 86대 불도저 4대를 동원하여 총연장 3.5km의 하천 준설작업을 전개했다. 총회원 200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하천과 농수로의 준설을 통해 쌓여 있던 퇴적물을 제거 하므로서 물흐름을 원활케 하여 하천 범람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중기연합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은 신정호 상류 지역인 초사전을 시작으로 금곡천, 곡교천상류지역, 인두면 모현리와 공세리, 갈매리의 농경지 배수로까지 총 3.5km구간을 정비 했다.

중기연합회 회장 맹승섭은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 준 회원들이 고마웠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슴으로 하는 행정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읍·면·동 현장 속으로

### ■ 시민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에 진지한 답변

강희복 아산시장은 지난 달 26일부터 읍·면·동을 순방하여 시민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 어려움점등을 귀담아 듣는 현장행정을 강행했다.

이번 순방은 읍·면·동의 일반현황이나

했다. 특히 대단위 사업현장과 예정되지 않은 경로당, 마을회관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예년과 달리 시민들로부터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담아 간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관련실과의 국장과 과장들이 함께 나가 시민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함께 얻어내고 있다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 탕정면 주민들과 시장논의

업무처리 내용의 청취 보다는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현안문제가 시민요구사항, 개선방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 ■ 불편한 점 해결, 좋은 점 확산

시는 24일 선정연을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읍·면·동별로 접수된 시민의 목소리를 관련 실과에 알려주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해결 방안등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법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정 전반에 반영토록 하므로서 좋은 시책이 확산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시·군통합 변혁의 10년, 중부권 중핵도시로 발돋움

1995년 1월 1일 운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 되면서 시의 재정규모나 면적의 팽창 등 질적 양적인 면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혁을 이뤘 내면서 중부권 중핵도시로 확실히 발돋움 했다.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시를 평가하는 모든 기본적 잣대가 되는 주민등록인구가 10년 만에 20만명 시대에 진입했고 살림 규모도 5천여여원으로 약 4배에 이르게 됐으며(열그림도표 참고) 다양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한층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실천하면서 여러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됐다.

### ■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이를 위해 시는 노인인가구 급증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전문기관에 맡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



▲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 ■ 시대흐름의 변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	156천명	185천명	200천명
가구	48,384	63,394	73,498
재정	예산 1,357억원	2,255억원	5,001억원
지방세	229억원	368억원	783억원
교육	도서관 5개소	7개소	11개소
복지	경노당 262개소	357개소	412개소
교통	자동차 27,468대	50,952대	64,861대
국도(4차선이상)	1	1	3

므로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으로 지역의 실버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인물들로 구성된 실버밴드를 지원해 지역문화행사 참여 공연등 왕성히 활동중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의관을 건립해 장애우들이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취업상담등의 프로그램을 펼치므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회 활동참여를 적극 유도한 결과 헬스파워농구단이 전국에 두각을 나타내며 각종대회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여성들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에 이동 여성대학, 여성자치대학 운영등 여성들의 사회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꽃꽂이교실, 기술교육, 컴퓨터교육등 취미교실도 활성화 해 나가고 있다.



▲ 청소년은 아산의 미래...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중요성의 인식을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 시켜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문화종합공간의 건립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

### ■ 도로가 바뀌면서 아산시가 변했다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을 도로와 상수도등 도시의 간접자본 확충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4차선이상의 국도가 1곳에서 3곳으로 증가했고 아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되고 국도 21호선이 확·포장 되는 등 아산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또한 2005년도 충청남도 통계에 따르면 기업 유치면에서 아산시가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양의 물을 기업이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지하수의 고갈등이 예상되므로 시급한 상수도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상수도 보급률 향상시키면서 달성하면서 읍·면지역까지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6년차적 계획을 수립 차근차근 추진해 오고 있다.

## 2005년 고향사랑, 아산사랑의 해

시는 2005년도를 고향사랑, 아산사랑의 해로 정해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4대실천 운동「좋은 책 보내기 운동, 시민장학금 모금운동, 시민헌수 운동, 청결운동」을 전개기로 하고 관련부서의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서관을 통해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시안 1월부터 시작 된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은 가정에서 읽고난 책이나 구입 후 읽지 않고 보관중인 도서를 수집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양서를 선별하여 각급학교, 작은 도서관, 독서실, 공부방등에 기증해 하므로서 보다 다양한 도서에 많은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증되는 도서에는 기증자 이름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주므로서 개인의 작은 정성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사회참여의식과 함께 아산사랑의 실천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심어 주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푸른 숲이 우거진 미래의 아산 건설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헌수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참여하는 시민이 1구와 10,000원 기준으로 신청하면 시에서는 목적을 선정하고 헌수할 정소를 지정하여 식재를 돕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나무가 자라는 도시 아산, 수시로 찾아가 자신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면서 열사람의 나무와 어우러져 푸른 숲을 이루는 내고향 아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애향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확실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아산이 교육환경 개선도 시민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장학금 모금운동을 추진 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내고향장학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에 의존해 장악예매의 폭이 넓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과 함께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시는 전시민이 참가가 가능한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한다. 대외적으로 온천과 관광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쾌적하고 신선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시가지지를 맑고하게 정비하는데 시민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집안 내가 슬기 운동, 불맛이 대청소, 농촌페비닐 모기, 쓰레기 분



▲ 법시민 헌수운동 추진위원회 회의장면

리배출 지키기,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수거 운동을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유도 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 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같은 시민참여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우리 고향 아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 일으켜 시민사랑의 힘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고 성장하는 스마트 도시 아산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는 자랑스런 내고향 아산의 구성원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5년 농기계순회수리 실시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구)는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 이 연중 농기계이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한다.

3월 21일 선장면 신덕리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순회수리 차량과 농기계교관 및 수리기사2명등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수리점과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는 물론 고장원인과 수리요령들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에 350여종의 부품은 탑재, 농가 편의를 위해 1만원미만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 3월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

일자	21	22	24	25	28	29	31
운영장 마을	선장면	노고산면	선양면	온양면	온양면	범지	농성면

### 유면동 소식 눈 크게, 귀 쫑긋

새해가 되면 늘 주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읍·면·동별로 시장님과 주민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유면동 읍에도 어김없이 초청장이 왔다.

시큰둥한 마음으로 초청장을 열어 보니 장소가 눈에 확 들어온다. 동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이 아닌 온양4동에 위치한 남산웨딩홀? 의아하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개 지역 주민들이어서 동사무소를 활용 했던 예년과는 달리 근내 결혼식장을 대회의 장소로 잡았다는 함에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했다.

머리를 가우뚱 하며 읍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일상적인 이야기기 오고 가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별반 기대 없이 회의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느닷없이 마음속으로 앉아 있는데 오가는 이야기가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신정호총합개발계획은 신정호수질개선, 연꽃단지조성, 순환관광도로조성, 꽃길조성등이 있으며.....” 우리동에 위치한 신정호를 이렇게 개발한다구..... 눈은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아! 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언골을 볼 수 있겠구나. 아침에 조금 부지런 할어 조깅도 즐길 수 있을테고, 가족들과 손고고 도란도란 이야기 하며 산책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어린이 마냥 기분이 들었다.”

이러 저러 생각으로 따위를 피우며 지나 해와 달리 나는 대화의 장 속으로 빠져들면서 점점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됐다.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바로 처리 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에 나는 100 점이라는 믿음의 점수를 후하게 매겼다.

다른 해와 달리 장소가 바뀌어 주차도 쉽게 하고 깨끗한 회의실이 기본을 충족 하더라도 오고가는 이야기기가 진지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자세하며 확신에 차있는 답변이 있어 올해 우리 동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도 좋겠구나 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돌아 올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초청장을 받고 시큰둥 했던 자신이 스스로 속스럽다. 간자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면 이번 기회에 주위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 하나쯤은 거뜰히 해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온양4동 / 주부명예기자 명경옥

### 대보름 동근 달 맞으러 송악골로

송악면 일원에서는 지난 22일 송악종물연구회가 주최하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열려 500여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한해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와 외암 다리 제행사, 액운을 물리치고 병기를 물리친다는 부럼치기 등

기 행사등 다채로운 전통 민속행사가 개최됐다. 송악면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풍물을 치고 동네를 한바퀴 돌며 집집마다 행운을 빌어주고 서로 음식을 나눠먹는 아름다운 전통민속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외암리에서는 같은 날 사단법인 외암민속마을보존회가 주최하는 장승제와 함께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참가한 가운데 풍성하게 개최 됐다.

이날 행사는 장승제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전통 떡메 치기등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사라지는 청소년들에게는 선조들의 놀이문화



▲ 달타는 달집, 송악도 이뤄질듯

를 체험케 했으며 참가자들은 소중한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받아들여 졌다. 특히 소외를 전어 미리 달집에 매달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불을 댕기는 달집태우기 행사의 절정을 이루면서 주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한해동안 마음과 이웃의 안녕을 함께 빌었다.

### 내이랑 마을에서 밥솥 흠쳐 먹었어?

영면면 신봉리 내이랑 마을에서는 지난 2월 19일 대보름맞이 달맞이 행사가 주민과 외래 관광객 500여명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취미적으로 내려오는 굴타리, 달집태우기, 지신밟기와 함께 땀에 땀을 흘려 두부를 만들고 쌀을 찌어 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전개되어 가족과 함께 참석했던 청소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손두부를 만들어 먹었던 어르신들을 추억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철저한 고공으로 전 주민이 참석해 짙은 꼬아 줄을 만들고 흥·서 양근으로 나뉘어 율타리기를 한 아산의 율타리기는 국내외에 많이 알려져 있고 대보름에는 많은 언론매체들이 행사를 취재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아이들은 입감을 호호불며 쥐불을 놓고 장봉에 담아 돌리면서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신봉리 사람들을 신기하게 풍물을 두드러며 어깨춤사위



▲ 내이랑마을의 인절미 맛 보셨어요?

에 한해의 액운을 내주고 행운을 빌며 하나가 됐다. 한편 행사에 참석했던 한 어르신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고 더위를 팔았던 선조들의 풍속이 어스름 저녁에는 낮녘 달을 타고 들어가 이웃집 가마솥에 넣어 푹 밥을 흠쳐 먹던 모습도 아산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이라고 알려 주면서 ‘옛날에는 달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쯤이면 밥을 흠쳐 오겠거니 하고 의례 넉넉하게 밥을 지어 식지 않도록 가마솥에 넣어 두는 배려와 훈훈한 인심이 흘러 넘쳤다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영면 / 주부명예기자 송경옥

### 새 학기 이렇게 준비하자

갓 시집 온 새댁은 요리를 잘 못해도, 집안일이 좀 서툴어도 마냥 이뻐 보이듯이, 해 마다 3월이 되면, 뚝에 맞지 않는 험렁한 새 꼬박을 입고 뽕내는 새내기들의 모습이 티 나게 어색하고 우스워보여도 마냥 사랑스럽게만 보인다. 꽃내 나는 초봄의 웃을 벗고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기로 입문한다는 설레임은 새내기들 못지않게 첫 자녀를 삼급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새 학년, 새 학기라는 낯선 상황에서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한 친구, 좋은 선생님, 잘해주는 선배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안고 시작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처음 보는 친구에게 잘 말걸, 질문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현하기, 대부분의 대인관계와 학습능력이 자식기에서 비롯된다. 캐나다의 스코아 토티와 반야의 15년에 걸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의 뇌 크기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 20%나 작았고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신감은 나무에 물을 주듯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이다. 나는 할 수있다, 나는 해낸다, 나는 자력이 있다는 신념을 지니는 습관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 청소년 캠프 때 지나가다 몇 마디 편견없는 따뜻한 말로 격려 해 주었던 한 중학생이 그 후 뜻밖에도 상담에 의뢰되어왔다. 그 당시에는 위축되고, 의욕이 없어보였고, 소극적으로만 보였던 학생이, 나를 보자 안심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느껴졌고, 상담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또 다시 달달이 지난 지금 그 학생은 점점 의욕이 높아져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친구관계가 새로워졌고 학교교우를 잘하는 소위 모범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학생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신감의 물을 스스로에게 붓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 학기, 새 출발!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도전하자. 이산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김경숙

### 2005년도 아산시 제안모집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시행정의 향상 변화와 연구하는 자세로 행정품질을 높이고자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05. 1 ~ 12. 31 (연중)
  - 제안자격 : 아산시민, 전문가, 시소속 전 공무원
  - 전문분야 : 교수 및 박사, 해당 자격증소지 전문직경력 5년이상
  - 제안내용 : 지역발전, 행정능률향상 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 제출처 : 아산시청 정책담당관실
  - 제출방법 : 제안내용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우편 :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번지(우.336-701)
    - 홈페이지 : (첨언마당 - 제안)를 발송합니다)
    - FAX : (041) 540-2319 - E-mail: sy273@iasan.com
  - 부상지급기준(1차이후) : - 통보상 : 200만원 이상
  - 우수상 : 50만원 이상 - 노력상 : 10만원 이상
- ◆ 문의처 : 정책담당관실 정책1담당(041-540-2382)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강화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인상 및 2005년 2월 22일 부터 대물보험가입 의무화됩니다.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 및 건설기계	
	대물배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10월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10월 초과 1년 이하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최고기간	172일		158일		132일	158일

- 무보험기간중 도로를 운행하다 무인단속기 등에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됩니다.
- 미가입운행 자동차 보유자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상습운행자 및 범칙금 미납자)

■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 540-2361

3월 1일은 제86주년 3·1절!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답시다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내 · 알리



농촌폐비닐 · 농약빈병 수거 계획

- 수거(매출) 방법 :
  - 하우스 비닐 : 백색과 유색 2종류로 구분하여 따로따로 모아놓을 것
  - 하이덴(덜칭) 비닐 : 하우스 비닐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 색깔 구분 없이 모아놓을 것
  - 농약플라스틱병 : 내용물을 비우고 비료포대, 폐포대에 담아 묶어서 모아놓을 것
  - 농약유리병 : 농약플라스틱병과 구분하여 비료포대, 폐포대에 담아 묶어서 모아놓을 것
- 수거방법 :
  - 마을별로 대·처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수집
  - 한국환경자원공사 천안사업소 (☎566-7352, 휴대폰 : 011-460-6083)에 연락하여 수거 요청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 : 2005년 12월 수집량 여과 보상 및 지급예정
- 기타문의 : 환경보호과 재활용담당(☎540-2070)

야생 동 · 식물 보호관리제도 변경안내

- 야생 동 · 식물 및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야생동 · 식물보호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과 포획금지 등 안내
-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범, 비바리범
  - 포획금지(20종) :
    - 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 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까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범,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포획금지 제외(11종) :
    - 올챙이,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범, 아무르장지범, 줄고리뱀, 복살모사
  -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 :
    - 다람쥐, 청동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목 적 : 국유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 운영
-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재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 재등록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고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 기타 부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등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수칙

-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각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스안전관리 수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아파트 가스시설)에서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침하되어 배관이 휘거나 뒤틀리는 등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 연결부위의 고정상태를 살펴줍니다.
  -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용기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보고, 연결부위가 느슨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파손,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도시가스(중부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가스판매점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신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문의 : 아산시 지역경제과(☎540-2350),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북부지사(☎1544-4500)



200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접수 : 2005. 3. 7 ~ 3. 12(6일간)
- 접 수 처 : 읍 · 면사무소(중서부권 시청 시역경제과)
- 구비서류 : 구직활동확인서(아산시취업정보센터 발급), 건강보험증, 유학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 접수기관)
- 사업기간 : 2005. 4. 4 ~ 6. 25(3개월)
- ※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1세대 2인이상, 17세 이하 및 66세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실업급여 수급자(본인) ⇒ 단, 월 수급액 410천원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가능 (확인서 첨부), 연급 수급액이 3개월 평균 410천원 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기타문의 : 아산시 지역경제과 (전화 : 540-2352, 540-2351)

5대 무료 암 검진 안내

- 아산시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계획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암 조기발견 : 조기치료로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생년도 출생인자를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대상은 자궁암 30세 이상의 여성,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위암 · 간암은 40세이상, 대장암은 60세이상입니다. 무료 검진대상 시민께서는 의료보험 카드 등 건강보험 카드, 보내드린 안내문을 가지고 암 검진 의료기관으로 가서서 무료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검진 의료기관 :
    - 한사랑아산병원 :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 현대병원 :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 아산한국병원 : 위암, 간암, 대장암
    - 아산중앙연합의원 : 위암, 유방암, 간암
    - 세브란스의원 : 위암, 간암, 대장암
    - 다나산부인과의원, 천아산부인과의원 : 자궁경부암
  - 기타문의 : 읍 · 면 보건지소 (전화 : 540-2538)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자원을 확보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 연면적이 160㎡(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경유자동차
  - 납부의무자 :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괄계산)
  - 부과기준 및 납기(년2회 부과) :
    - 부과기간 : 2004. 7. 1 ~ 12. 31(182일)
    - 부과기준일 : 2004. 12. 31
    - 납부기한 : 2005. 3. 31
  - 매년 상반기분(1. 1 ~ 6. 30)은 그해 9월, 매년 하반기분(7. 1 ~ 12. 31)은 다음해 3월 부과
  - 기타문의 : 아산시청 환경보호과(전화 : 540-2331-4)로 문의 바랍니다.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안내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 현금이 인출되는 가위바위보게임, 아구게임,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기
  - 등급분류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이용 또는 보관
  - 게임기 개 · 번조 및 경품취급기준 위반 사항과 경품 환전행위
  - 기준 위반 노래연습장
  - 주류판매 및 제공행위 · 주류보관 및 반입육인행위
  - 청소년 시간제 출입 및 청소년외에 청소년 출입
  - 점대부고용 및 알선행위 · 무명유리창 시설개조(썬팅 부착 등) · 등록종 미부착
  - 기준위반 게임장
  - 문화콘텐츠설비공급 · 무등록 영업행위
  - 경품취급
- 위반자 제재사항 :
  - 관계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불법 시설물, 유기기구는 압류 폐기처분
  - 위반자 신고 : 아산시청 공보체육과(540-2254)

차상위계층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	5인가	6인가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최상위기준	481,759	802,205	1,089,515	1,363,588	1,563,532	1,773,360

- 소득인정액 산정시 특례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

지역 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상위 의료급여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국민기초생활	3,800만원	3,100만원	2,900만원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시 :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질병 ·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환산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이내 혈족
- 차상위 의료급여 예산 : '06년2억 (국·교)



# 거북선 다싱 척! 곡교천에 떠다

## 제44회 아산성웅이순신 축제 미리보기

시와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는 제4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현충사와 곡교천을 주무대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예년보다 일찍 프로그램을 결정 하므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국가문화축제로 지정된 만큼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년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축제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판단 아래 지난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6개분야(안내, 방역, 교통 및 질서계도, 청소환경, 행사진행보조, 인터넷 홍보)에 해당하는 대대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축제에는 무과전시의 외 70여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핵심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과 대회참여형 프로그램등 다양하게 치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몇 안되는 인돌스토리형 축제인 점과 전국민이 성원으로 받드는 이순신장군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축제의 핵심을 이순신장군 일대기에 맞추어 명장 이순신을 최대한 부각 시킬 계획이다.

또한 승합성수 봉송 봉치식의 이동경로를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곳곳에서 전개하면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방송 및 신문등 언론사와 국방부 등의 후원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충무공의 정신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마련한다.

### 축제중 눈여겨 볼만한 행사

축제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행사로는 거북선 경주대회 및 승선체험 프로그램이다.

이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위용을 떨쳤던 거북선을 소형으로 제작하여 곡교천에서 각 분야별 경주대회를 개최하고 일반 관람자들에게도 거북선에 승선하여 노를 저어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일반 관람자들이 거북선에 승선하여 임진왜란 당시 맹위를 떨쳤던 거북선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노를 저어보면서 선조들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보존하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초들을 되새기면서 국가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애국심을 다시한번 되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프로그램의 성격을 말했다.

### 현충사 인근주민 생활불편 없도록

이외함께 축제 때만 되면 매년 되풀이 됐던 주차문제를 이번기간 중에는 북부외곽도로를 이용해 알뜰히 해결하기로 하고 4차선 연결 도로를 개발하여 현충사 인근주민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했다.

또한 북부의과도로에 주차한 관람객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곡교천 위여 부교를 놓아 부교건너기 체험도 하고 행사장까지 가기도 훨씬 쉽도록 했으며 부교를 건너면 650여 미터의 거리를 코끼리 열차와 서늘차로 행사장에 닿을 수 있다.

시와 축제위원회는 국가문화축제인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전국규모의 축제로 성장하리여 치루어지고 시의 위상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성웅이순신축제 일정별 행사계획

	1일차(4. 27)	2일차(4. 28)	3일차(4. 29)	4일차(4. 30)	5일차(5. 1)
06:00-09:00					축제가개시행 일대행 시정발
10:00-11:00	거북선경주대회(경주대회) 승마 및 활쏘기경연(곡교천)	거북선경주대회(승선체험) 승마 및 활쏘기경연(곡교천) 상봉(아산대) 1000-1200			
10:30-11: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1:00-11: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1:3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3:00-13: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3:00-14: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4:00-14: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4:30-15: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5:00-15: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5:00-17: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6:00-16: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6:30-17: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7:00-18: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8:00-20: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8:30-19: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19:00-20: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20:30-21:3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이순신해양문화공연(아산대) 1000-12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성웅이순신축제 행사장 안내도



### 읽고 싶은 책 권하고 싶은책

#### 그림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

종속화를 통해 조선의 표상과 실재를 재조명한 책.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전통이 대부분이 약 1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의 모습과 종속화 속에서 잊어버린 조선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위에 세워진 근대의 시선을 내려내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만나게 한다.



#### 어린이 도서

호주머니속의 귀뚜라미  
아들없이 주는 이야기  
빨간보셔너까보  
나무의 비밀  
친구가 공부 왜하니  
두로코 강을 건너서  
101일간의 세계일주  
아기 까치의 우산  
엄마이베랑은 많이 안듣네  
친구가 마음이 몇살이니

레베카 커릴 / 세계적  
김현태 / 아이앤북  
신나 로나디 / 문학의 서정사  
앨런 니엘 토포피앙 / 세계적  
파기우 / 큰나  
김서정 / 웅진닷컴  
호기심박스 / 영교출판  
김미경 / 창비  
카르멘 카를렌 / 윙스  
박종길 / 해피데이

#### 일반 도서

환공정 시대  
서구문명은 동양에서 시작 되었다  
지나 시피엔스  
세상불 바꾼 전쟁  
살의 길  
어는 농사꾼의 별에서  
발행물 라이히  
달랑달랑한 힘  
사람 VS 사람  
뉴욕은 왜 그렇게  
인들레 영토 위임스토리

전공관 / 살림  
조미훈 / 예코리브르  
레너드 실레인 / 들녘  
폴리감퓨터 / 시마을판사  
크리스토프 호른 / 생각의 나무  
이상국 / 창비  
마미엔 세라프 / 양문  
한민복 / 문헌세계사  
정세민 / 계미고원  
강일중 / 연극과인간  
김영환 / 편협아우스중앙